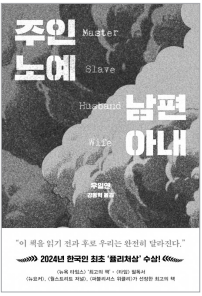


흑인 노예 부부의 탈출기, 시대를 증언하다

주인 노예 남편 아내
우일연 지음, 강동혁 옮김



실화가 주는 감동은 묵직하다. 약 200년 전, 미국의 한 흑인 노예 부부의 탈출기는 독자를 강렬하게 빨아들인다.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소설임을 알았지만, 읽는 내내 실화임에 다시 놀라며 맘 졸인 채 그들의 담대한 여정을 따라가게 된다.

한국계 미국인 우일연의 소설 '주인 노예 남편 아내'는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 떠난 용기 있는 모험담과 저항의 기록이자, 사랑과 연대, 희망의 이야기이다.

70여페이지에 달하는 '각주'가 말해주듯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 책은 소설이면서 동시에 시대를 증언하는 역사서로도 읽힌다. 더불어 오래 전 미국의 '노예' 이야기는, 세계 곳곳에서 계급과 인종, 민족을 둘러싼 혐오와 차별의 형태로 반복되고 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작가는 2024년 한국인 최초로 풀리처상을 수상했으며 책은 그해 뉴욕타임스 등 30여개 언론에서 '올해의 책'으로 꼽혔다.

소설은 1848년 12월 10일 미국 조지아주 메이컨의 한 저택에서 시작된다. 등장 인물은 로버트 폴린스 박사의 노예인 20대의 윌리엄과 엘렌 크래프트 부부. 노예들이 매 맞고 산 채로 불태워지는 모습을 목격해왔고 경매시장에서 팔려나간 가족과 생이별을 경험한 두 사람은 자유를 찾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대담한 탈출을 감행한다.

폴린스 아내의 이복자매로 백인에 가까운 모습인 엘렌은 '돈 많고 몸이 아픈 젊은 백인 남성 주인'으로, 남편 윌리엄은 병약한 주인을 보살피며 헌신하는 '흑인



(왼쪽부터)병약한 백인 주인으로 변장한 엘렌 크래프트. 1870년경의 엘렌 크래프트. 1870~1875년경의 윌리엄 크래프트. <DROM 제공>

노예'로 위장한다. 그들은 어둠의 경로를 택하는 대신 기차 일등석, 증기선, 호화 여마차 등을 이용하고 최고급 호텔에 묵으며 1600km를 이동해 목적지인 필라델피아에 당도한다. 소설은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될 위기, 일등칸과 삼등칸에 탄 두사람의 예기치 않은 헤어짐 등 탈출 과정을 실감나게 묘사한다.

두 사람은 반노예제를 주장하는 연사로 수많은 강연에 참여하며 열정적인 삶을 살아갔고 그들의 등장은 집체 상태에 있던 노예제의 도덕적 문제를 다시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당시 미국에는 300만명의 노예가 있었고 173cm, 90kg의 남성 노예가 길이 90cm 폭 60cm, 높이 70cm 상자안에 들어가 27시간 고통을 겪은 후 탈출에 성공하는 등 죽음을 각오한 몸부림이 이어졌다.

1848년부터 1852년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600쪽의 방대한 분량 중 압권은 나흘간의 긴박한 탈출기지만, 노예 사냥꾼들에 쫓기면서도 미국의 여러 도시와 이후 옮겨간 영국에서 프레드릭 더글라스, 루이스-해리엇 벨 헤이트 부부 등 운동가들과 연대하며 반노예 운동에 몸

담은 부부의 이야기 역시 감동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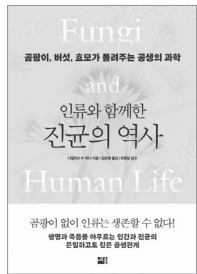
저자는 두 사람의 자서전 '자유를 향한 1000마일'을 비롯해 부부가 만난 다양한 인물들의 저서와 편지, 발인 등을 통해 윌리엄 부부와 당시의 상황들을 한 방향이 아닌, 입체적으로 조명해 독자에게 다양한 시선을 제공한다. 또 여전히 노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노예제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 노골적인 차별 대신 언어와 삶에서 의도를 감춘 채 교묘하게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의 행태 등도 생생하게 보여준다.

책의 마지막 크래프트 부부 등 인물들의 사진을 접하면 영화가 끝난 후 실존 인물들의 모습이 스크린에 올라갈 때처럼 묵직한 감동이 한번 더 밀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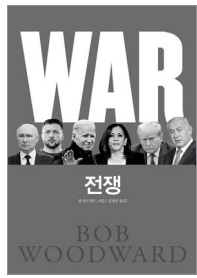
저자는 "소설 속 인물들이 당대에 제기했던 모든 문제는 지금도 유효하다"며 "소설은 이데올로기로 분열된 국가와 민족에 관한 이야기이자 억압을 벗어나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의 이야기이며 불의에 대항한 투쟁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드롬 DROM·2만2000원> /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인류와 함께한 진균의 역사(니컬러스 P. 머니 지음, 김은영 옮김)=곰팡이, 버섯, 효모 등 진균은 인류보다 오래된 생명체로, 질병의 원인이자 생명을 지탱해 온 숨은 동반자다. 책은 인간과 진균의 얽히고설킨 관계를 과학·의학·문화의 시선으로 풀어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 문명과 죽음까지 관여해 왔는지를 따라가는 흥미로운 군류 탐사기다. <세종서적·2만2000원>



▲법은 그렇게 바뀌었다(류준곤 지음, 강초아 옮김)=노예 소녀의 탈출, 러빙 부부의 결혼, 낙태권을 둘러싼 '제인 로', 조지 플로이드 사건까지 미국 법정을 뒤흔든 굵직한 재판들을 '사람'의 얼굴로 다시 읽어낸다. 독립선언문의 이상과 달리 권력의 편에 섰던 법이 어떻게 약자들의 싸움과 전략적 소송을 거치며 조금씩 바뀌었는지 결정적인 판결의 장면들을 통해 보여준다. <들녘·2만2000원>



▲전쟁(밥 우드워드 지음, 김정수 옮김)=폴리처상을 두 차례 수상한 밥 우드워드가 21세기 세계 정세를 뒤흔든 굵직한 사건들의 이면을 추적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그리고 트럼프의 정치적 재기를 둘러싼 미국 권력의 움직임들 중심으로 백악관 안에서 오간 결정의 순간들을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과 각국 정상

들의 대화, 전쟁 확산을 막기 위한 긴박한 판단들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캐피탈북스·3만원>

▲이별은 사랑이다(최문화 지음)=요절한 지성 전해린의 삶과 고독을 소설의 형태로 파헤쳤다. 독일 유학과 번역가로서의 명성, 결혼과 이혼, 창작에 대한 갈망과 깊은 고독을 따라가며 자유를 향한 열망이 어떻게 사랑과 충돌했는지를 섬세하게 그려냈다. 개인의 비극을 넘어 여성 지식인이 감내해야 했던 시대의 한계와 고독을 인간 보편의 문제로 확장한다. <도하·1만69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원소의 하루(사만타 루이스 지음, 하오 하오 그림, 한성희 옮김)=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를 이루는 모든 장면 속 원소들의 이야기를 따라간다. 음식과 옷, 연필과 비누처럼 익숙한 사물을 통해 화학 원소가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과학을 외워야 할 지식이 아니라 매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로 느끼게 해준다. <그린북·1만8000원>

▲룩키즈 탐정단(오홍선이 지음, 김민우 그림)=추리 대회에 참가한 '룩키즈 탐정단'이 단서와 논리를 따라 사건의 진실에 다가간다. 범인을 맞히는 결과보다 추리의 과정과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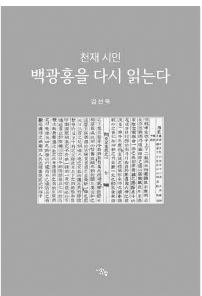
도에 초점을 맞춰, 어린 독자가 함께 생각하고 추리하도록 이끈다. 장르적 긴장감과 윤리적 메시지를 고루 갖춘 정통 어린이 추리 동화. <이지북·1만5000원>

▲인공지능이 뽑은 반장(허유선 외 지음, 우지현 그림)=동국대 철학과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를 가르치는 허유선과 그 제자들이 함께 쓴 세 편의 동화를 엮었다. 추천 알고리즘, 인공지능 평가, 자율주행차 같은 기술을 교실 속 이야기로 풀어 아이들이 '선택·공정·책임'을 스스로 생각하게 한다.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덧붙은 설명 코너가 인공지능 시대에 꼭 필요한 윤리의 기준을 짚어 준다. <나무아·1만5000원>

천재 시인

백광홍을 다시 읽다

김선옥 지음



기봉 백광홍(1522~1586)은 '우리나라 기행가사의 효시'인 관서별곡을 쓴 시인이자. 장흥 출신의 백광홍은 '선조실록'에서 팔문장으로 공인받을 만큼 그의 문장은 지고지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관서별곡'이 현대 한국문학사에서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1963년 '국어국문학' (제26호)에 소개되면서다. 당시 이상보 교수가 '백광홍의 관서별곡 연구'라는 주제로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이후 김동욱, 고경식, 정익섭 등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기봉의 문학이 점차 조명을 받았다. 이처럼 백광홍

의 문학이 의미있는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것이 고작 50~60여년밖에 안됐다. 문인으로서의 삶이나 정신, 사상 등에 대한 조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장흥 출신 김선옥 시인이 기봉의 삶과 문학세계를 조명한 책을 펴냈다. '천재 시인, 백광홍을 다시 읽다'는 기봉의 작품성과 그 이면에 드러워진 '인간 백광홍'의 이해를 돕는데 초점을 뒀다.

그동안 저자는 '강은 그리움으로 흐른다', '지는 꽃이 아름답다', '꽃자리' 등 시집과 에세이집 '참사랑', 대담집 '스님, 사는 게 뭘니까' 등을 발간한 바 있다.

저자는 7일 통화에서 "기봉 백광홍은 우리 지역의 고전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문단에서는 기녀와의 염문설 등 오해된 부분이 많았다"며 "일찍 요절을 한 탓에 거의 조명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번 책을 펴내게 된 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백광홍의 숨겨진 사실이나 역사적 증거 등을 찾아 삶과 사상을 정리했다"며 "특히 작품을 통해 인물됨됨이를 고찰하는 부분에도 역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저자에 따르면 책을 발간하기까지 2~3년이 걸렸다. 대학 교수를 비롯해 연구자들 자문도 받고, 보완을 했다.

저자는 "정철은 당대 유명한 문인이었고 문집도 발간해 조선조에서 화제가 됐다"며 "그러나 백광홍은 문집이 나오지 않아서 주목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런 역사적 사실 등을 규명해 이번 책에 담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김 시인은 직접 백광홍을 연구해 10여 편의 글도 썼다. 이번 책은 백광홍의 연보, 논문 등 기봉에 대한 모든 것을 수록하고 있어 자료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김 시인은 "장흥문학의 현대문학은 1세대가 이청준, 송기숙, 한승원 작가들이다. 2세대로 이승우, 한강 등을 꼽을 수 있다"며 "한강의 노벨문학상은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봉 백광홍으로 이어지는 장흥문학이 토대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와사망·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능 알로에베라겔 함유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